



진주교 서울대교구 잠실성당 (예수성심성당)

05559 송파구 올림픽로12길 9 (잠실동)
본당사무실 : 415-5321~2 (FAX)419-6721
홈페이지 : www.잠실성당.org

주임 신부 : 이재철 요셉 신부
부주임신부 : 최경한 사도요한 신부
보좌 신부 : 김형섭 가브리엘 신부
수녀원 : 김타비타 수녀, 홍나탈리아 수녀
사목회장 : 이충규 스테파노
연령회 : 010-3220-2705

미사 및 전례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오후 4 : 00(초등부), 6 : 00	평 일 미 사	오전 6:00 (월~금) 오전 10:00 (화~토) 오후 7:00 (화~금)
	주 일	7:00, 9:00(중고등부) 11:00(교중), 17:00 (청년) 19:00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5시
			혼 인 예 식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WYD)참여 신청

우리는“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아버지(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27년 WYD 참여 운동은,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응답해야 하는 큰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신앙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 1.기도운동 : 묵주기도 200만단 바치기운동
(다른 지향과 통합하여 함께 봉헌 가능)
- 2.기부운동: 1.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신청
2. 세계 청년대회 기부금 약정
3. 본당 주요 행사 봉사자 신청

* 본대회 : 8월 3일(화)~8일(주일)

* 신청서와 약정서는 : 사무실

10월 묵주기도 성월 전신자 묵주기도

10월 전신자 묵주기도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WYD)와 50주년 감사기도와 개인기도 지향 봉헌으로 실시 합니다. 교우님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 저녁 미사 후 : 성전

병자 영성체

일 시 : 10월 22일(목)

신 청 : 구, 반장 및 사무실(10월 21일까지 접수)

구,반장 월례회의

일 시 : 11월 6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장 소 : 성전

사목협의회

일 시 : 10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장 소 : 지하 대강당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안내

11월 2일(월)은 교회가 제정한 위령의 날입니다.

이날 미사는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봉헌을 원하시는 교우님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사봉헌: 10월31일(토)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미사시간: 새벽 06시, 오전 10시

접 수: 사무실

10월 남성구역 모임

날짜	구역	시간	장소
10/18(일)	13 구역	교중미사 후	예비자교리실
	09 구역	교중미사 후	안드레아 방
10/23(금)	5,6,7,8구역	18시 30분	사도요한 방
10/24(토)	10 구역	19시	사도요한 방

(우리들의 정성(10/05~ 10/11))

· 교 무 금		11,665,000원
· 주일헌금		7,152,500원
· 특별헌금		13,802,700원
· 감사헌금		2,010,000원

감사헌금

신현학	1,000,000원	조상은	500,000원
양태영	300,000원	박지영	100,000원
이복자	100,000원	신현희	10,000원

묵주기도 200만단 봉헌 (2026년 10월 11일 현재)

묵주기도 봉헌	남은 묵주기도
379,649	1,620,351

* 이번 주 교리기도 봉사는 6구역 입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본당 설립 50주년, 그 의미와 우리가 나아갈 길

- 은총의 50년, 희망의 50년을 향하여 -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절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 잠실 본당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길을 준비할 때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잠실 본당은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에 선포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7년을 일곱 번 거듭한 49년이 지나고 맞이하는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따라서 50년은 단순히 세월의 흐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해입니다.

희년의 중심에는 회복과 해방, 나눔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 질문 앞에서 50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함께하신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첫째, 50주년은 은총을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한 숫자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수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희생, 봉사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50주년의 첫 번째 정신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느님의 은총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50주년을 맞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둘째, 50주년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희년은 지나온 시간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느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50주년을 맞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서로 사랑했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품었는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해 주었는가?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느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었는가?

50주년은 우리의 성취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한 것은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볼 때, 앞으로 걸어갈 길도 비로소 보입니다.

셋째,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희년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듯, 50주년도 과거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50년을 잘 살아왔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올 만큼 세상도, 사람들의 삶도, 신앙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전통은 지키되,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복음을 살아가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흘러도 복음의 빛은 새로운 길을 비춥니다. **50주년은 지난 50년을 닫는 문이 아니라, 새로운 50년을 여는 문입니다.**

넷째, 50주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50주년의 진정한 열매는 행사가 끝난 뒤에 맺힐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줄 때 비로소 50년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신앙의 씨앗은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50주년은 지난 세대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새로운 50년을 함께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50주년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계셔야 합니다.

50주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주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50주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걸으시며 이루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찬미하는 50주년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과 기억은 세월 속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세대를 넘어 흐르고 또 이어집니다. 반세기의 긴 시간, 기쁨 때나 힘들 때나 우리 곁을 지켜 주신 분도 하느님이셨고, 이제 새로운 50년의 길을 밝혀 주실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50주년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희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느님,

지난 50년은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50년,

당신께서 밝혀 주시는 빛을 따라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50년을 함께하신 하느님,

다가올 50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위원회